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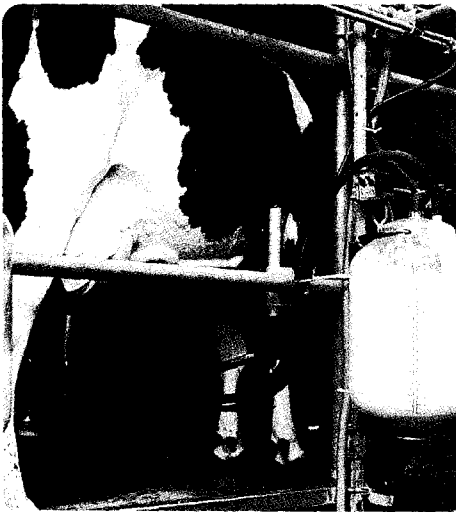


유 우 광 부  
검정차장 임 병 순

# '96년도의 젖소개량

## 1. 급변하는 주변여건에 신속대처를

우리 축산업이 좋았던 시절은 지나가고 이제 정말로 어렵고 힘에 겨운 주변 여건이 조성될 지경에 이르렀다.



고능력우의 착유과정

시유 및 유제품의 전면 개방과 냉장육의 수입, 유통은 물론 이미 진행되고 있는 멸균유의 국내시장 잠식등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반기며 웃을 것이라곤 하나도 없다. 일례로, 며칠 전 들은 얘기를 하나 소개하여 보면, 오늘 호주에서 집유되어 가공처리된 시유가 이튿날 아침 싱가폴의 슈퍼마켓에 진열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싱가폴사람들은 이 우유를 마시고 있다고 한다.

우리도 안심할 수 없다고 본다. 언제 어느나라 우유가 이런 상태로 우리의 식탁을 노크하게 될지. 다행히도 얼마전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모 백화점에 들렀을때 국내 시유가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수입 멸균유를 호기심에 사먹어 봤는데, 맛이 없어 그냥 버렸노라고 했다. 나는 가슴이 철렁하였으나, 이내 안도의 한숨을 몰아 쉴 수 있었다. 낙농가 스스로 단결하여 난관을 극복하여야 하겠고, 안으로는 내가 기르는 젖

소들의 생산능력을 높여 원가절감과 더불어 양질의 원유를 생산, 좋은 등급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2. 개량의 현주소

### 가. 혈통등록사업

1995년도 말 현재 우리나라 홀스타인 젖소는 약 55만 두로 추정된다. 이중 '95년도에 혈통확립을 위하여 등록사업에 참여한 두수는 약 2만 2천여 두로 전체의 4.1%에 불과하다. 오늘날 낙농 선진국들의 발자취를 보면, 개량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혈통등록의 비율이 수십%에 이르는 열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선진국이 된 것이다. 그들의 혈통을 몰랐을때 직, 간접적으로 당하는 피해를 교육을 통하여 알게 되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꾸준히 혈통등록사업에 참여했었으리라고 본다.

우리도 늦었지만 “늦었다고 생각될 때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라는 옛 선인들의 말에 따라 지금부터라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야 하겠다.

### 나. 선형심사사업

젖소의 중요한 개량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심사는 선형심사와 일반체형심사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두가지 수단 모두 경제 및 생산형질과 관계되는 기능적 체형의 형질을 파악하는 것으로서 선발과 도태의 지침을 제공함은 물론, 이를 토대

로 계획교배에 의하여 후손에게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것이다.

'95년도 말 현재 우리나라의 2세이상 착유두수는 약 32만두 정도가 된다. 이중 작년 한 해동안 심사를 받은 젖소의 숫자는 7천여 두로 2.2%에 불과한 실정이다.

앞에서 언급된 혈통등록사업이나 심사사업 모두 당대에 개량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혈통과 심사형질을 토대로 후손에게서 어미보다는 능력이나 체형을 좋게하여 경제 및 생산능력을 올려나가자는 수단인 것이다.

### 다. 산유능력 검정사업

앞에서 거론된 혈통등록사업 및 선형심사사업과 더불어 젖소개량의 3대 기본사업이라 할 수 있는 젖소의 산유능력 검정사업 역시 매우 중요한 개량 수단이다. 그러나 인력, 정부 보조금 등 여러가지 제약을 받음으로 인하여 많은 농가의 참여를 수용하지 못하고 한정된 농가 및 지역에 국한하고 있는 실정이 아쉽기만 하다.

참고로 '95년도의 우리나라 산유능력 검정사업의 실제를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검정비율은 두기관 합하여 6.6%에 불과하여 보잘 것이 없다.

그러나 다행히 정부에서는 2001년까지 성우두수의 40% 선까지 산유능력 검정을 받도록 한다는 '중축개량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늦게나마 매우 다행스런 일로 큰 환영을 표하며, 발표된 내용대로 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기원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가 합심하여 정부를 한 목소리와 강한 힘으로 밀어줘야 하리라고 본다.

〈표 1〉 '95년도 검정현황

구 분	두수 (두)③	조합수	비율 (%)	비고 (%)④
KAIA①	5,000	1	24%	1.6%
NLCF②	16,000	23	76%	5.0%
계	21,000	24	100%	6.6%

- \* ① 한국중축개량협회
- ② 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 우수개량사업소
- ③ '95년도 사업계획 두수
- ④ 2세 이상우 32만 두에 대한 비율

### 3. 개량방향

앞의 '개량의 현주소'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아직도 우리나라의 젓소개량 기반이 보잘 것 없음을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옛말에 “천 리길도 한 걸음부터” 또는 “첫 술에 배 부르라”라는 속담도 있듯이, '96년도는 이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기 위한 원년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

첫째로, 혈통등록사업 부문에서는 현재 농림수산부와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중축개량협회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소 수급관리 전산화(소 전산등록)사업'과 혼돈하지 말아야 하겠다.

'소 전산등록'은 이를 기반으로 향후 신속하고 정확한 축산정책 수립과 쇠고기 수급관리,

송아지 생산가격 안정제도, 방역체계 구축 및 체계적인 개량사업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기초자료임을 알아야 하겠다.

한편, 젓소의 혈통등록사업은 낙농가의 수익 증대를 위하여, 혈통의 확립 및 보존을 위하여 가축개량업무의 일부분을 한국중축개량협회에서만 실시하는 사업임을 정확히 알아야 하겠다.

아울러 한국중축개량협회에서는 점차 젓소의 혈통등록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할 예정이다.

둘째로, 선형심사 사업도 보다 많은 농가의 참여가 있어야 되겠다. 심사사업의 중요성 또한 혈통등록사업이나 산유능력 검정사업 못지 않게 젓소 개량에서 중요한 사업임을 앞의 내용을 참고하여 이 사업에 동참하는 농가가 늘어나도록 지도·교육도 아울러 철저히 하여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젓소의 산유능력 검정사업을 향후 다소 유동적이긴 하나 정부 방침대로 관철되어 추진되길 바라고 마음놓고 검정사업에만 전념하는 날이 오길 고대하며, 후보 종모우 생산 등 낙농산업에 크게 기여하는 개량사업인 만큼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일지라도 오로지 개량사업에만 매진할 수 있는 체계적이며 제도적인 뒷받침(국고보조 등)을 추구하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하여는 정부는 물론 학계, 업계, 농가 등의 한 목소리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게 느껴진다.

#### 4. 결 론

소에 대한 격언 및 속담은 수 없이 많다. 그 중에 “사후 약 방문-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현재의 우리나라 농가들이 머지않아 이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다시 말해서 나라 안팎으로 급변하는 사정도 모르고 구태의연한 생각으로 가만히 주저 앉아 있다보면 국제경쟁은 고사하고 이웃간의 경쟁에서조차 밀려 자연적으로 도태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되기전에 '96년도를 낙농산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정립하고 도약하는 한해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울지않고 가만히 있는 아이에게 어느 누가 젖을 줄 것인가? 언제, 어디서든지 낙농가를 위한 교육이나 세미나등이 있다면 부지런히 쫓아다니며 배우고 익혀 필요한 부분은 나의 것으로 만들어 나의 목장에 맞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 “시간이 있어야 가보지” 또는 “그냥 그냥 버티다 그만두지” 등 변명들이 많다. 물론, 시간이 있어 참석한다면 얼마나 좋으련만, 우리의 낙농 여건은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다. 없는 시간을 쪼개어 바쁜중에서 짊을 내서 참석하는 것이 진짜 그 시간이 가까워서라도 교육다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모쪼록 '96년도 젖소 개량이라고 특별한 방

향이 없다. 그리고 특별할 수도 없다. 소의 상징인 우직함 그래도 꾸준히 밀고 나가는 길외엔 뽀족한 방법이 없다. 농가도 마찬가지다. 개량 사업에 동참했다고 하여 하루아침에 젖이 더 나오고, 체형이 좋아져서 경제수명이 길어지는 것이 아님을 다시한번 생각하고 열심히 그리고 묵묵히 동참했을 때 그 결과는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말을 바꿔보면, 가축의 개량이 다 그렇겠지만, 특히 다른 가축에 비하여 젖소의 개량에는 정도(正道)가 없다는 말이다.

목표(체형, 능력 등)가 정해지면 꾸준히 추진하여야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결과를 기다리자.

소와 땅은 주인에게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주인이 그들에게 뿌린만큼 그들은 주인에게 돌려준다고 믿는다.

생존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하여, 그리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자.

